

(토론4)

‘아산 결인청’의 역사문화적 가치조명과 복원 방향

아산시영인면 노인회

회 장 이 무 희

아산 결인청의 역사 문화적 가치 조명과 복원 방향

□ 아산 결인청의 역사

1576년 아산현감으로 부임한 ‘토정 이지함’은 오늘날 우리 후손들에게 ‘토정비결’이라는 예언서를 만든 인물로 더 유명합니다.

하지만 이 분은 높은 학문의 경지를 말이 아닌 몸으로 직접 실천하신 것으로 세계인의 역사에 길이 남을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날 생산적 복지시설인 “결인청”을 설립하여 빈민을 구제하였다는 것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일로서 길이 기념해야 할 것입니다.

토정 이지함 선생은 선조 11년 1578년 전국적으로 계속된 흉년으로 백성들의 생활이 궁핍해지자 '왕은 백성을 하늘로 삼고 백성은 먹을 것을 하늘로 삼는다. (王者以民爲天 民以食爲天)'는 상소를 올리고 아산 영인에 세계 최초로 생산적 복지기관인 결인청을 설립하여 빈민과 노약자를 구제하였습니다.

□ 아산 결인청의 의의

토정 이지함 선생이 설립하신 아산 결인청은 기존의 구황정책과 달리 구황과 동시에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교육시켜 궁핍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생산적 복지정책이라는 점에서 세계 역사에 빛나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는 점에서 세계적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책이나 기관은 세계적으로 없었으며 서양에서 근대 복지정책의 아버지로 꼽는 이탈리아의 마키아벨리도 말로서는 주장하였지만 구체적으로 실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마키아벨리는 말로써 이러한 주장을 하였다고 근대 사회학이나 복지학의 아버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키아벨리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토정 이지함 선생은 말 뿐이 아닌 이론과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를 세계 최초로 실천하였습니다. 진정한 근대 사회학과 복지학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이 찬란한 문화유산을 후손인 우리는 잊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무능한 후손입니까! 우리가 아산 결인청을 다시 복원 설립하려는 것은 단지 지역사회 일의 아닙니다. 세계인들이 몰라서 잘못 알고 있는 학문과 역사를 바로잡는 일을 하자는 것이며 조상들의 빛난 업적을 기려 자랑스러운 후손으로서 민족적 긍지를 갖자는 것입니다.

□세계 최초로 인정되고 있는 근대적 복지정책과 결인청 정책 비교

이탈리아의 마키아벨 리가 근대 복지정책의 창시자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는 16세기 로마에서 걸인들을 잡아들여 깊은 우물 속에 집어넣고 물을 퍼낼 수 있는 바가지를 각자에게 주어 며칠간 쉴 새 없이 물을 퍼내게 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에 빠져 죽기 때문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걸인들에게 노동의 중요성을 가르쳐 그들이 사회에 다시 나와서는 죽지 않기 위하여 물을 밤낮으로 퍼낼 때처럼 일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들 스스로 걸인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근대사회학의 인식관점이며 생산적 복지정책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어린이나 노약자들에게는 적용할 수 없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 마키아벨리는 세계최초의 근대사회학과 복지정책의 아버지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같은 16세기를 살았던 토정 이지함 선생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결인청은 가난한 백성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주던 기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먹을 것 제공에 그치지 않고 농업뿐만 아니라 상업이라든가 수공업까지 가르쳐 줌으로써 백성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한 기관이었습니다."

- 신병주 (건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노약자와 병자는 쉼을 삼게 하고 건장한 이에겐 고기잡이를 시키고 손재주가 좋으면 수공업을 가르쳐 의식(衣食)을 자급할 수 있는 자립기반 제공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을 담당하는 기관이 결인청이었고 이를 이지함 선생께서 세계 최초로 건립한 것입니다.

그러면 마키아벨리와 토정 이지함 선생 중에서 누가 진정한 근대사회학과 복지정책의 아버지라 할수 있습니까?

□아산 결인청 복원 설립의 필요성과 방향

1) 시대적 환경

- 복지사회는 세계적 관심사이며 인류사회의 지향점이다.
- 복지와 발전이라는 양대 과제 속에서 생산적 복지가 주목 받고 있다.
- 생산적 복지의 이론적 근거와 실천 방향에 대한 논란이 많다.

2) 아산 결인청 복원 설립의 의미

- 세계문화유산적 가치가 있는 역사적 기관을 복원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자긍심을 높인다.
- 문화자원을 산업화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한다.
- 생산적 복지의 진정한 의미를 후손들에게 교육한다.

3) 방향

- 토정 이지함과 아산 결인청에 대한 발굴 조사
- 아산 결인청 복원
- 결인청 정신을 살린 직업체험관 운영
- 현청 및 박물관 설립

< 아산 결인청 복원 설립 추진 건의안 >

□ 제 목 : 아산 결인청 복원 설립 추진

□ 주 관 : 아산 결인청 복원 설립 추진위원회

□ 기 간 : 2015년 3월 - 2017년 2월

□ 재 정 : 민자, 국비+지방비(중앙정부, 충남도, 아산시)

□내용

- 1) 아산 결인청 및 토정 이지함에 대한 역사적 고증 및 발굴 조사 연구
- 2) 아산 결인청 복원 설립
- 3) 영인초등학교 이전 → 영인중학교와 통합
- 4) 현존하는 ‘여민루’를 살려 ‘아산 현청’과 ‘토정 박물관’ 건립
- 5) 영인초등학교 교사를 활용한 ‘토정 직업체험관’과 ‘인성교육관’ 설립 운영

□예상 효과

- 1) 세계 문화유산 등재
- 2) 연 128만 명의 아산 방문객을 연 200만 명 이상으로 확대 유치하여 아산 발전 활성화
- 3) 인성교육과 생산적 복지교육을 통한 선조들의 지혜로운 삶을 청소년들에게 교육
→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청소년 육성으로 민족적 단결심 고취
- 4) 문화유산 산업화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발전의 원동력
- 5) 서해안 시대의 관문으로서의 아산시 위상 정립

2015년 2월 6일

아산 결인청 복원 설립 추진 준비위원회

· 고 문 : 이기철
· 준비위원장 : 이무희
· 준 비 위 원 : 최진희, 성기대, 이성우, 지용기, 이희주, 이몽리, 서남석, 이희명, 김원배, 박영목